

여수·순천·광양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오현섭 여수시장

‘청정 순천만’ 이미지 실추 어떡하나

체협선·낙시어선 등 불법 운항·관광객에 호객행위도

“엑스포 SOC 차질없이 확충”

“4년 4개월 남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여수 국가산단 연관 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한편 오전산 단 노후 시설을 정비해 지방산단을 육성하고, 중대형 조성을 비롯한 기업 유치에 본격화할 방침이다.



조성 ▲산간기반시설 확충 ▲성공적인 제 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도 올해 여수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사책들이다.

조선소 등 기업 유치 박차

‘여수 엑스포 성공개최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광양만권을 비롯한 남해안권 시·군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를 환영하는 친기업 분위기를 조성하며, 세계박람회 유치과정에서 얻어진 여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 강화로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순신광장 조성을 비롯해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 ▲사도·남도지구 관광지 조성 ▲WTC 복합컨벤션센터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추진 ▲친환경 녹색도시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확대

목표~거제 일주도로 구축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향상과 시민들의 시정참여에 달려있다”면서 “각종 지역현안과 주요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행정절차를 꼭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 선박의 불법 운항과 호객 행위가 성행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순천만에는 체협선 4대, 낙시어선 1대 등 5척의 배가 허가를 받아 운항하고 있다.

로 관광분위기를 망쳤다”며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순천의 이미지마저 실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순천 신도심에 살고 있는 정모(여·주부)씨도 “다시 찾고 싶은 순천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본격화

여수시, 태스크포스팀 발족...내년 초 사업 착공

GS 칼텍스가 지난해 10월 여수시와 체결한 협약서(MOA)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공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SK 에너지가 울산에 조성한 시민공원에 1천 600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SK 에너지보다 더 많은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나해 GS 칼텍스 관계자들과 울산 SK 시민공원, 경주 엑스포공원을 둘러봤다”며 “시민들에게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수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어 GS 칼텍스와의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선정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 침몰선박 실종자 수색 재개

해경·여수시, 선사에 선체 인양 촉구 명령서 보내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화학약품 운반선 이스턴 브라이트(EASTERN BRIGHT)호에서 실종된 선원 1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2일 재개됐다.

또 선사인 ㉞NHL개발 측이 심해 잠수업체와 계약을 맺고 착수할 예정이었던 수색 작업도 기상 악화로 지연되고 있다.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Lists various regions and their corresponding numbers.

호남 폭설에도 여수 적설량 고작 0.7mm 왜?

평균기온 광주보다 4~5도 높고

눈구름, 조계산 넘어서면 약해져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여수에서는 눈의 거의 구경할 수 없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전남 지역의 겨울철 눈은 시베리아에서 부는 차가운 공기가 10도 안팎의 ‘따뜻한’ 서해 바다와 만나 수증기를 발생, 강력한 눈구름이 형성되면서 내리게 된다.

도 겨울철 눈 구경이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겨울철 평균 기온이 광주와 비교해 4~5도 높아 상대적으로 따뜻한 여수 날씨도 많은 눈을 감쌀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광양 마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됐다

6세기 초 백제 산성...보존 잘 돼

광양 마로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1일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해발 200m의 산 위에 자리한 마로산성(전남기념물 제173호·1만9천945㎡)을 국가지정문화재 제 492호로 지정했다.



마로산성은 6세기 초, 산을 빙 둘러 돌을 쌓아 만든 백제 산성이다. 9세기까지 사용된 성곽이 잘 보존돼 있고, 5차례 발굴조사에서 명문기와편 등이 출토됐다.

이와 함께, 보존상태가 좋아 국내 고대 산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Family Real Estate Broker)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Broker)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Real Estate Broker)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Real Estate Auction Specialist)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